

2009. 6. 15 제217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지하철 소재로 문학작품집 출간 (런던)
2. 세계의 민족, 종교, 전통이 만나는 '카니발 오브 컬처' (베를린)
3. '최고의 맛집' 가리는 음식축제 개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산업·경제

4. 신생 창의기업을 위한 무료 이동점포 (런던)
5. 관광도시의 기본은 언어장벽 허물기 (베를린)
6. 결혼쿠폰 발행으로 결혼산업 활성화 (상하이)

### 건강·복지

7. 집 잃을 처지의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 논의 (산타모니카)
8. 실내금연 위반하면 영업중지 (브라질 상파울루州)

### 행정·재정

9. 탈세 막는 영수증 제도의 활용범위 확대 (브라질 상파울루州)

## 목 차

### 도시환경

10.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성장도 모색하는 도시개발사업 (런던)
11. 버스정류장 승차권 발매기에 LED 조명 설치 (런던)
12. 환경부하 적은 자동차에 '적합차 표장' 보급 (도쿄)
13.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도쿄)
14. 전기자동차 10만 대 목표 (런던)
15.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조명 프로젝트 공모전 시행 (독일)
16. ICAP 가입으로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박차 (도쿄)
17.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이 성장 동력 (중국)

### 도시교통

18.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자전거 혁명' 계획 발표 (런던)
19. 지하철 내 '비만인 특별좌석'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 도시계획·주택

20. 가족농장 단지의 용도 전환 장기간 보류 (베를린)
21. 도시 과밀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정책 (런던)

### 1. 지하철 소재로 문학작품집 출간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이 배경인 한 문학작품 100여 편을 모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함.

- 런던 남서지역과 동북지역을 가로지르면서 히드로 공항, 피카딜리 서커스, 킹스크로스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인 피카딜리(Piccadilly) 선을 다녔다고 해서, 작품집 이름도 ‘피카딜리 나라’(Piccadillyland)임.
- 런던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는 ‘지하철과 예술의 만남’(Art on the Underground) 프로그램에서 문학작품집 발간을 주관함.
-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하철을 다시 조명하게 하는 등 시민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하철뿐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일상을 예술과 접목한 문학작품을 재조명해 문학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tfl.gov.uk/art](http://tfl.gov.uk/art))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811.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811.aspx))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의 문화와 관광에서 장소 개발은 중요한 문제임.
  - 영화나 소설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은 무의미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 자신의 이야기처럼 만들어 내는 장소화의 장치임.
- 서울수도 청계천을 대상으로 한 소설은 많이 만들어졌으나, 서울 곳곳의 얘기를 묶은 스토리텔링 북은 만들지 못한 상태임.
  - 런던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의 이야기를 묶은 소설이나 영화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장소에 배치해 장소의 의미를 찾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라도삼/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2. 세계의 민족, 종교, 전통이 만나는 ‘카니발 오브 컬처’ (베를린)

- 베를린市는 다양한 국적의 4500여 명 행사관계자가 준비하는 ‘카니발 오브 컬처’를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함.
- 독일에서 외국인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인 베를린市는, 다국적 인구 구성이 도시의 국제성을 나타내고 도시가 국제적인 중계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 아래, 이를 다양한 문화행사로 표현함.
- 1995년부터 시작된 베를린 카니발은 그동안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과 함께 유럽의 중요한 카니발로 자리잡음.
- 베를린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구인 크로이츠베르크에서 거리 행렬과 축제로 시작함.
  - 어린이 카니발도 부속행사로 열려, 가족 문화행사의 의미도 있음.
  - 화려한 민속의상, 가면, 춤, 리듬, 다양한 민속 축제와 음식이 어우러진 카니발에서 시민은 국적과 문화, 종교가 서로 다른 외국인을 만나 대화하고 체험하였음.

([www.karneval-berlin.de](http://www.karneval-berlin.de))

### 한 줄 뉴스

#### ● 브라질

- 쿠리치바市,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기업을 신고하도록 시민 참여 독려
- 기존 브레이크보다 사고위험이 적은 ABS 브레이크를 2014년까지 모든 자동차에 장착 의무화

### 3. ‘최고의 맛집’ 가리는 음식축제 개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음식축제인 ‘코미다 지 부테코’(Comida di Buteco)를 2009년 5월 29일부터 개최함.

- 市 특별관광국의 후원을 받았고, 31개 업소가 참가해 ‘최고의 맛집’을 선정함.  
· 심사 기준은 음식 맛이 70%, 서비스와 와인 등 음료의 온도·위생상태가 30%임.

- 2008년 제1회 축제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8313](http://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8313))

## 산업 · 경제

### 4. 신생 창의기업을 위한 무료 이동점포 (런던)

○ 런던市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이동점포(KiosKiosK)를 창의성이 뛰어난 신생 기업이 무료로 이용하게 지원함.

-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창의 기업가들이 문화예술 관련 상품을 제작하고도 사무실 마련 등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련된 사업임.

· ‘런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도자 사업’(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s London Leaders Programme)에서 재원을 마련함.

· 런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도자 사업은 각 분야별로 선정된 민간 지도자 16명이 각자의 풍부한 경험과 자유로운 시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2009년 7~9월 런던 시청사 밖에 이동점포를 전시함.

· 제1호 이동점포는 ‘런던 이야기’ 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것으로, 2009년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시·운영됨.

- 런던市는 이동점포 사업을 통해 대형 점포와 높은 건물세 등에 밀려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소규모 창의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에게는 좀더 다양한 문화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동점포를 설계할 때 미관을 고려해 도시 미관 효과도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17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178))

([www.london.gov.uk/storyoflondon](http://www.london.gov.uk/storyoflondon))

([www.kioskiosk.co.uk](http://www.kioskiosk.co.uk))

([www.noisefestival.com/kioskiosk](http://www.noisefestival.com/kioskiosk))

## >>> 전문가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은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 아직 산업적 기반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재정문제가 가장 큰 제약요소가 되고 있음.
- 중소 콘텐츠 기업의 경우 재정적 제약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공간 확보는 정책수요가 많은 영역임.
-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취약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입지대안 중 하나로 런던市의 무료 이동점포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서울시가 디자인기업의 집적과 디자인 상징가로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디자인스트리트 조성사업의 경우 상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함.
- 이외에도, 공간이동형 사업패턴 때문에 임시 체류형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상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무료 이동점포형 시설은 제작활동 지원을 위한 유용한 시설로 기여할 것이 기대됨.

/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jbs66@sdi.re.kr)

## 5. 관광도시의 기본은 언어장벽 허물기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부, 베를린 수도마케팅회사, 상업협회,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포털사이트([www.service-in-the-city.eu](http://www.service-in-the-city.eu))를 개설

함.

- 상점, 음식점, 호텔 등의 종사자는 업종에 따라 필수 대화와 어휘를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시청각 자료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개점시간 같은 단어나 문구 등 영업에 필요한 간단한 글귀도 무료로 제공함.
  - 메뉴판이나 제품 리스트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번역 서비스가 제공됨.
- 베를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상점이나 서비스 가게들이 외국 손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거래를 좀더 원활히 할 수 있게 돼, 베를린시가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세우고 관광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25/12847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25/128474/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시가 관광마케팅을 위해 개설한 외국어 포털사이트는 시정부, 공기업, 비영리 단체, 업계 등 관련 단체와 기관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 훌륭한 본보기라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주)(STM)와의 협력은 원활한 것으로 보이나 여타 단체나 업계와의 협력은 아직도 미약함.
  - 향후 관광진흥 관련 연구개발, 정책 결정, 집행, 그리고 현장적용이라는 일련의 정책적 시스템을 일컫는 민·관·학 연계를 내실있는 협력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와 노력이 필요함.
- 다른 국가나 문화권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언어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함. 그러나 관광객이 실제 느끼는 불편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들을 맞이하는 호스트로서의 의무이자 역할임.
  - 서울시는 그동안 관광안내소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7년과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불편사항이 언어소통 문제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의 정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관광의 주 제약요소인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식이나 방법을



전환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전문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종합 검토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효과적이며 신축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 6. 결혼쿠폰 발행으로 결혼산업 활성화 (상하이)

-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각 지역정부가 여행 쿠폰, 주택구매 쿠폰, 가정용품 쿠폰을 내놓은 데 이어, 상하이市는 결혼 예정 커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혼쿠폰을 발행할 계획임.
  - 상하이 결혼협회 주관으로 결혼 예정인 1만 쌍의 커플에게 100위안(약 1만 8천원)의 결혼쿠폰을 지급함.
    - 연말까지 상하이 결혼협회 지정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과 소득증가에 따라 결혼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결혼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
    - 결혼쿠폰 발행이 결혼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www.pkjg.com/weddingnews/v-97-181386-1.html](http://www.pkjg.com/weddingnews/v-97-181386-1.html))

## 한 줄 뉴스

### ● 뉴욕

-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2009년 5월 25일부터 브로드웨이 차량 통제 프로그램 시범 시행

### ● 베를린

- 청소년의 청각 건강을 위해 노력한 디스코텍에 '소음 조정 디스코텍 인증서' 발급

## 건강 · 복지

### 7. 집 잃을 처지의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급 논의 (산타모니카)

- 산타모니카市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월세나 주택 관련 대출이자를 감지 못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 시의회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 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제출한 계획안이 통과되면 HUD에서 최소 6억 9500여만 원(\$553.000)을 지원받게 됨.

- 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에 최장 18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지급된 돈은 월세나 은행이자,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 이사 및 정착비, 법률자문 등에 쓰이게 됨.

([www.smdp.com/Articles-c-2009-05-13-59131.113116\\_City\\_Hall\\_wants\\_to\\_give\\_cash\\_to\\_families\\_losing\\_homes.html](http://www.smdp.com/Articles-c-2009-05-13-59131.113116_City_Hall_wants_to_give_cash_to_families_losing_homes.html))

### 8. 실내금연 위반하면 영업중지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암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하루 평균 7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음. 상파울루州는 실내 공공장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과 최소 2일 이상의 영업중지로 처벌함.

- 상파울루州 보건당국은 실내 금연을 어긴 업체에 대해 4단계로 처벌함.

-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 790헤알(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재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두 배가 됨. 세 번째는 48시간 영업을 중지하고, 네 번째 걸리면 한 달간 영업을 중지함.
- 보건당국은 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벌금을 내는 것보다 면허정지를 더 두려워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중지 처분을 적용하기로 함.

- 보건당국은 단속을 위해 기존 250명에서 500명으로 단속원을 늘릴 계획임.  
([www.estadao.com.br/cidades/not\\_cid367096,0.htm](http://www.estadao.com.br/cidades/not_cid367096,0.htm))

## 행정 · 재정

### 9. 탈세 막는 영수증 제도의 활용범위 확대 (브라질 상파울루州)

- 상파울루州는 유통세를 환불해주는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Nota Fiscal Paulista)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영수증 적립금으로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
  - 파울리스타 영수증 적립금은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세 공제에만 이용됐음.
  -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에게 실제 걸린 세금의 30%를 유통세로 환불해 주는 제도임.
    - 상파울루 주정부가 기업의 탈세를 막아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함.
    - 물건 구매 시 소비자가 납세번호를 알려주면, 업체는 납세번호를 영수증이나 쿠폰에 기록해 나중에 소비자가 세금환불 혜택을 받게 함.
    - 물건 구매 시 자신의 납세번호를 밝히기 싫다면 영수증만 받아 복지단체나 보건 분야 비영리단체에 주고, 이들 단체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통세로 걸린 세금 가운데 30%를 소비자의 구입액에 따라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을 환불해 줌.
    - 소비자는 자신의 납세번호로 적립된 금액을 자동차 소유세 납부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적립금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 적립금 혜택 외에도 영수증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상을 주는 등 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함.

· 앞으로는 영수증 적립금으로 휴대전화 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됨.

- 영수증에 납세번호를 누락하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업체에는 317헤알(약 16만 원)에서 1585헤알(약 8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함.
- 2007년 10월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400만 명이 참여했으며 6억 5000만 헤알(약 32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감.

([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529231.shtml](http://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529231.shtml))

## 도시 환경

### 10.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성장도 모색하는 도시개발사업 (런던)

○ 런던市 동부의 알버트 베이신(Albert Basin) 지역과, 도심에서 가까운 서더크區 엘리펀트 앤 카슬(Elephant and Castle) 지역이 기후 대응 개발 사업지로 선정됨.

- ‘기후변화 대응 개발사업’(Climate Positive Development Program)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도시 성장을 함께 모색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으로, ‘클리턴 기후 대책’(Clinton Climate Initiative)에서 총 16개 사업지를 선정·지원함.

- 기후변화 대응 개발사업의 핵심은 개발 단지를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무배출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임.

- 런던市의 사업지역 두 곳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후 대책을 반영한 목표를 세우고 지역별 달성방안을 마련하게 됨.

- 해당 자치단체와 단지 개발사업자들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건물의 신·증축 시 수익을 증대하는 혁신방안, 청정에너지 발전방안, 폐기물 처리 및 감소 방안, 물 관리, 가로등과 같은 외부 조명체계 설치·운영 방안을 협력·추진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7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78))

([www.clintonfoundation.org](http://www.clintonfoundation.org))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개발사업’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저탄소 사회 실현이라는 질적 성장관리 개념으로 전환함.
- 에너지 소비 부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변화 대응 개발사업은,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기대가 큼.
- 2030년 저탄소 사회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맞춤형 저탄소화 추진전략임.
- 단일 건물 중심의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서 벗어나, 마곡·용산·뉴타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탄소 무배출(Zero Carbon Development) 개발전략을 통해 서울시 전체를 저탄소 배출도시로 리모델링해야 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1. 버스정류장 승차권 발매기에 LED 조명 설치 (런던)

- 런던市는 버스정류장의 승차권 발매기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LED (발광다이오드) 전구조명을 설치함.
- LED 조명은 기존 조명기구에 비해 75%나 적은 전원을 사용하는 친환경 조명장치임.
  - LED 조명은 절전 효과가 있으면서 밝기는 강함. 사용 수명이 10년으로 길어 기존 형광등을 2년마다 교체할 때 드는 교체·폐기 비용도 절약하는 등 부가효과가 큼.
  - 이번 교체사업으로 2층 버스 10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런던교통공사는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도 살릴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함.
- 런던시는 현재 3500개소 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소와 640개 승객 대기소에 이미 LED 전구를 설치·운영 중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692.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692.aspx))

### >>> 전문가 검토의견

- 승차권 발매기의 LED 조명시설 설치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지만 세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사업으로 판단됨.
- LED 조명시설은 최근 기술 진보에 따라 경제성을 담보로 하는 저탄소 사업으로 주목받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활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LED 조명시설 설치에 현재 ‘저탄소 녹색교통 우선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임.
- 향후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교통 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린 카 보급을 확대하고, 신호등·가로등 교통시설물의 LED 조명 교체로 교통의 녹색혁명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2. 환경부하 적은 자동차에 ‘적합차 표장’ 보급 (도쿄)

- 도쿄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 확보 조례)를 개정해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규정함.
- 도는 의무규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차 표장’을 보급함.
- 도쿄도는 그동안 디젤차 주행 규제나 저공해차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

했지만 질소산화물(NOx)의 환경기준은 7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함.

- 자동차 NOx·PM법에 의해 대책 지역 내에 등록할 수 없는 구식 자동차가 대책지역 밖에서는 소유할 수 있어 도내로 진입하기 때문으로 분석함.



적합차 표장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q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q1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환경 확보 조례 개정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외에, 미흡했던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기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의 일환임.
- 노후 경유자동차는 이동오염원 가운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배송차량의 운행거리 증대와 지역 외 등록차량의 유입 운행 등은 부가적인 배출요인으로 특화관리가 필요함.
-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5년 대기질 측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5\mu\text{g}/\text{m}^3$ 을 기록하였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로서 면모를 더욱 일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린 카 보급이 바람직함. 단기적으로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7년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로 확대해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와 병행해 오염물질 과다 배출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수도권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지정·운영'과 연계하여 시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3.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도쿄)

○ 도쿄都是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 확보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체에 대해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를 추진하여 많은 사업체가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고 있음.

- 都是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1500kl 이상인 대규모 사업시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대상 사업체는 도내 사업체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내 업무산업 부문의 4%를 차지하고 있고, 1개 사업체의 평균 배출량은 일반 가정의 약 3300세대 분임.

· 배출량 감축을 위해 빌딩 소유자나 사업자는 고효율 설비로 개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감축에 따른 크레딧을 구입하여 감축 의무비율을 6~8% 달성해야 함.

· 기준 배출량은 2002~2007년 사이에 3년 연속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해야 함.

- 감축량을 거래하는 방법은 4가지임.

· 다른 사업체가 의무량을 초과하여 감축한 초과 감축량, 도내 중소기업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감축한 양인 중소 크레딧, 도외의 사업체가 감축한 양인 도외 크레딧,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환경 가치인 재생에너지 크레딧임.

- 시행은 2009년 4월 1일부터며, 감축 의무 개시는 2010년 4월 1일임.

·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양과 가산분의 감축 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으로 상한 50만 엔(약 650만 원)과 사업자명을 공표함.

([www2.kankyo.metro.tokyo.jp/sgw/jorei-kaisei20080625.htm](http://www2.kankyo.metro.tokyo.jp/sgw/jorei-kaisei20080625.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post-Kyoto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쿄都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는



C40 개최도시인 서울시 입장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아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서울시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 관리뿐 아니라 최근에 검토된 서울시 탄소거래소 등과 연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함.

/진상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부연구위원(upperhm@sdi.re.kr)

#### 14. 전기자동차 10만 대 목표 (런던)

- 런던시는 최근 C40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런던시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실현 계획을 소개함.
- 런던시는 런던을 유럽의 전기자동차 수도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가능한 빨리 1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런던 시내를 누비게 할 계획임.
  - C40 회의에 참석한 세계 도시 리더들에게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동의와 경험 공유를 강조함.
  - 전기자동차 홍보와 조달, 충전소 인프라 개발,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대한 재정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80](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80))

#### 15.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조명 프로젝트 공모전 시행 (독일)

- 독일은 2008년 독일연방 환경부가 공고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조명 프로젝트’ 공모전의 수상 도시로 쾰른, 뒤셀도르프, 괴팅엔, 라이프치히 등 18개의 도시를 선정함.
- 독일 연방 환경부는 현대적인 조명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조명 콘셉트를 개발하고자 공모전을 실시함.
  - 거리와 광장의 조명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기후 부담으로 이어짐.

- 공모전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이며 일상에 적합한 도시 조명을 위한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공모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 실시함.
  - 첫 번째는 현대적인 조명기술 생산으로, 에너지 효율적이고 시장에 판매될 수 있으며 도시의 조명 콘셉트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모아짐.
  - 두 번째는 도시 조명 콘셉트 개발 부분임. 현재 독일에서는 도시 조명 에너지로 30억~40억kWh가 들고, 이것은 연간 이산화탄소를 200만 톤 배출하는 기후부담에 해당하는 양임.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125.php](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125.php))

## 16. ICAP 가입으로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박차 (도쿄)

- 도쿄都是 ICAP(Th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에 2009년 5월 26일 정식으로 가입함.

- 2007년 10월에 설립한 ICAP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국제협력을 목표로 전문적인 논의와 의견을 나누는 포럼임.
- 도쿄都是 ICAP에 가입해 국제 탄소시장 창설 논의에 적극 참여함.
  - 본격적인 활동으로 2009년 가을, 세계 대도시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대도시의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워크숍(가칭)’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r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r200.htm))

## 17.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이 성장 동력 (중국)

- 중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임.

-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신중공업 지원 좌담회에서 관련 10대 중점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풍력에너지 발전
  -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태양에너지 시장 확대

- 베이징·상하이 등 13개 주요도시 대중교통의 에너지 절약 및 신생 에너지 자동차 시범사용 확대
  - 10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업의 에너지 절약기술
  - 전력·철강 등 13개 업종의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강화
  - 도시 및 농촌의 수질오염 관리망 건설
  - 생태환경 보호 및 오염배출 기업관리 강화
  -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 에너지 효율 표준 표시제도 통일화와 관련 통계 및 보고, 심사제도 확립 등 환경감찰감시능력 강화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안정화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필요함.

(finance.people.com.cn/GB/9345240.html)

## 도 시 교 통

### 18.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자전거 혁명’ 계획 발표 (런던)

- 런던市는 많은 사람이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장려하는 ‘자전거 혁명’ 계획을 발표함.
- ‘자유로운 바퀴’(Freewheel) 행사는 도심의 중요한 관광지역을 자동차 없는 도로로 조성하고, 도심뿐 아니라 외곽지역인 한슬로우(Hounslow)까지 이을 예정임.
  - 자전거 국제 행사인 ‘투어 오브 브리튼’(Tour of Britain)이 런던에서 개최돼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런던市에는 현재 54만 5000개의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9%가 증가한 수치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158)

## 19. 지하철 내 ‘비만인 특별좌석’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대중교통 내 비만인을 위한 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지하철 내에 비만인을 위한 특별좌석을 설치함.

- 비만인 좌석의 넓이는 90cm<sup>2</sup>로, 이는 일반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임.
  - 좌석은 250kg의 무게와 등받이는 100kg의 무게를 지탱하게 설계됨.

([www1.folha.uol.com.br/folha/cotidiano/ult95u550432.shtml](http://www1.folha.uol.com.br/folha/cotidiano/ult95u550432.shtml))

## 도시계획·주택

## 20. 가족농장 단지의 용도 전환 장기간 보류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4년 처음 가족농장(Kleingarten)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될 농원 단지를 2010년까지 가족농장으로 유지하기로 했음. 市는 그동안 확정된 지구 상세계획과 토지이용을 검토한 후 2010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가족농장 단지의 69%를 용도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기로 함.

- 19세기 중엽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와 함께 가난한 도시인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농장을 가꾸며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슈레버 박사가 가족농장을 제안함.
  - 현재 독일의 가족농장은 도시인이 도시 안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거주공간이자 동식물의 생활공간임.
  - 그동안 가족농장에서 이웃 간의 다양한 여가 및 공동체 활동이 많아져서 가족농장의 사회적인 역할도 강화됨.

- 베를린市의 가족농장 단지의 용도 전환 보류 결정은 가족농장의 도시계획적, 사회적, 보건정책적, 그리고 환경적인 역할에 대한 평가의 결과임.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519.html](http://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519.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19/128180/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19/128180/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의 가족농장 성공요인은 수익 목적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도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점임.
  - 집에 정원이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1개 단지 구성에 약 80억 원 정도 소요되지만 이용료는 연간 50만 원 정도로 저렴함.
- 서울수도 근교 화훼단지나 난 재배단지 등을 집단 가족농장으로 조성하고, 기반시설에 집중 지원하면서 정보교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 주민과 이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면, 공동주택 등 비좁은 도시공간에서 녹지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호응이 높을 것임.
  - 은퇴한 중산계층에게는 휴양형태로 이용하려면 높은 임대료와 함께 고급 주말농장을 제공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주말농장을 이용하려면 작은 규모의 텃밭을 제공함. 유기농의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려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체재형 가족농장을 제공함.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21. 도시 과밀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정책 (런던)

○ 런던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까지 런던시 과밀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정책을 발표함. 더 많은 가족형 서민주택을 조성할 계획임.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최초 주택구입 프로그램’(First Steps Housing Programme)과 빈 주택을 재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 최근 자치구와 협력해 2011년까지 서민주택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11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118))

## 한 줄 뉴스

### ● 도쿄

- 대학생의 녹지 보전활동을 독려하는 '그린 캠퍼스 프로그램' 실시
- 백열구를 전구형 형광램프로 교환하는 '백열구 일소 작전'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시도